현불 논단

봄철 만행을 맞으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대중 덕분 한 철 잘 살았습니다"
안거 마치면 서로 나누는 인사말
대중과 함께 산다는 것에 '감사'

산중에서 삶은 대중살이가 기본
도반과 탁마, 수행의 새로운 힘

해제 맞아 만행 나서는 대중들
걸음마다 깨달음의 꽃 피어나길

"대중 스님들 덕에 겨울 한 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거를 마칠 때면 함께 철을 지낸 스님들이 서로서로 나누는 인사말이다. 매 철을 마칠 때마다 나누는 말이라서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인사말 같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사만한 인사말이 없다.

대중에 산다는 것, 대중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리고 법회와 포살 등 대중의 모임은 언제나 감사하고 감동적이다. "한 철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이 인사에는 정말 가슴 가득 철철 넘치는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있다. 감정을 잘 다스리려는 마음을 놓지 않지만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차오르기도 한다.

산중의 수행인들은 이렇게 한 철, 한 철을 살아간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도반(道伴)'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다만 '함께 도를 닦는 벗' 일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공감하며, 서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도반이다. 가족을 떠난 출가인이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함께 살던 도반들과 헤어짐을 뒤로하면 각기 다른 산중의 선원과 공부처, 기도처 등에서 수행정진하던 도반들과의 만남이 다가온다. 은사 스님께 인사를 드리는 사형사제들의 모임이 있고, 강원이나 대학 등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 동문 도반의 모임도 있고 출가도 인연이라 이런저런 다양한 인연으로 만난 도반들의 모임이 있다. 도반들의 만남을 탁마(琢磨)라고 한다. 돌을 쪼아서 모양을 만들고 갈고 다듬어서 완성하듯이 도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거칠고 투박한 한 성품을 쪼아서 가꾸고, 말과 행동을 다듬고 갈아주는 데는 도반만한 사람이 없다. 때로 아프고 쓰지만 도반의 탁마가 수행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산중 스님들의 삶은 대중살이와 독살이가 있다. 대중살이는 대중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다.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4~5년의 기간은 거의 반드시 대중생활을 하게 되어있다. 옛 스님들은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고 하여 대중에 살아야 출가자의 품행과 위의가 반듯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대중을 떠난 사람은 공부에서도 멀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초심 출가자의 경우 대중이 아닌 독살이로 시작할 경우 평생 '독살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기도 하였다. 안으로도 당당하지 못하고 밖으로 대중의 단체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출가와 대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일체와 같은 말이다. 대중에 사는 스님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독살이에 해당하는 생활을 한 스님들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공부는 각자 내면에서 쌓이고 익어가는 것이라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여럿이 모여 함께 예불하고, 밥 먹고, 마당 쓸고 하는 생활일 뿐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은 대중이 주는 다양한 밝고 긍정적인 기운들 때문일 것이다.

대중에 살면서 또한 기다리는 것이 해제일이다. 석달의 꽉 짜인 대중생활을 지내며 여유와 자유를 꿈꾸게 된다. 경전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자유롭고 고독한 혼자의 길을 기다리는 것이다.

경허 스님의 시처럼 '춘성무처불개화(春城無處不開花)', 봄이 오는 마을에 꽃피지 않는 곳 없듯이 대중에서는 산중대로 만행 길에서는 마을이든 들판이든 가는 곳곳마다 수행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 날 것이다. 만행에 나선 스님들의 싱그럽고 활기찬 에너지가 세상에 두루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원하는 것 해결해야 감동 준다

율장 대품에 이 같이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전법선언을 하고, 우루벨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거진 숲속에서 앉아 쉬었다. 그때 부잣집 귀공자(貴公子)들이 숲속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반하고 소풍을 왔다. 그런데 모두가 술에 진탕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한 기녀(妓女)가 재물과 보석을 털어 도망갔다. 잠에서 깬 귀공자들은 기녀를 찾아 숲 속을 헤매다가 단정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을 만났다.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서 "세존이시여, 도망치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를 찾는 일이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한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자아(自我)를 찾는 문제는 종교나 철학, 인문학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부처님은 절대자인 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는 신의론(神意論)을 부정하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공이 인간(중생)임을 주장하였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원인과 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성된다는 인과법칙과 연기법칙을 주장하였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 사람의 귀천과 존재의 가치가 자기 자신의 행위(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귀공자들의 이야기'는 초기 불교 교단사에서 중요한 전법 일화이다. 한 순간 술에 취해 방탕했지만 본래 총명한 청년들은 부처님을 만나 "여자를 찾는 일이 중하냐?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중하냐"의 한마디 설법을 듣고 단박에 전미개오(轉迷開悟)하여 회심(回心)하였다. 쾌락의 극단을 추구하는 중독증은 나 자신은 물론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

부처님은 시(게송)로 설법하였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 없이 불타고 있는데 너희는 어둠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법구경)

그들은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성자로 새로 태어났다. 극단의 쾌락주의를 반성하고, 중도의 균형적인 삶의 길을 깨달았다.

법사는 설법할 때는 먼저 청법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과 어떤 성격의 법회인가를 알아서 청법 대중이 무슨 설법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알맞는 주제'를 정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설법 즉, 대기설법(수기설법)을 해야 한다.

〈카네기 자기관리론〉에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감동을 받는다"고 하였다. 엉뚱하게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육포(肉脯)설법'을 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설법은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근거'하여 설해야 신뢰가 있고 권위가 선다. 시변잡기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설법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게송이나 시를 낭송해주면 효과가 크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가 없다(오온개공, 무아설)', '나의 본래마음인 자성을 찾으면 부처가 된다(견성성불)', '중생(인간, 나)이 부처다',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사성제)' 등의 가르침이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수행법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제2의 법정 스님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 10주기인 3월 11일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스님의 유지를 잇는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근본도량인 길상사는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사진전과 음악회, 좌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법정 스님이란 큰 어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스님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도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들 사이에 방향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스님이 세상을 떠난 10년 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르침을 줄 만한 어른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불교계 존경하는 인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스님들이 한명도 꼽히지 않았다. 물론 인지도 등에 있어서 원효, 성철, 법정 스님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법정 스님과 같이 스스로의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또 현대문명에 날카로운 예각을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한다. 불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근본 원인을 돌아보면 포교와 전법의 약화로 인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불교계 내에 잘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등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만한 우리 사회의 어른이 종교계에 있었다.

법정 스님의 10주기를 맞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법정 스님과 같이 청빈한 삶을 통한 수행의 가치를 높이고, 현대문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받는 많은 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살핌일 것이다.

진정한 보시행은 이들처럼…

2월 11일 동국대를 찾아 자신들이 평생 일군 재산인 아파트와 상가를 사후 유산으로 기부한 80대 노부부가 화제다. 이날 학교를 찾아 기부증서를 윤성이 동국대 총장에게 전달한 전병천(80)·김정숙(81)씨 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님과 불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의 보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진실한 불심(佛心)에서 비롯돼서다. 부부는 자신들의 보시행은 평소 스님이 하신 "회향을 깨끗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영덕사의 주지 선공 스님이 조계종에 사찰을 기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리 살아야 겠다' 고 생각했고, 앞서 주석했던 혜원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복전(福田)을 일구는 보시는 사실상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노부부에게서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한다. 이는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가르침이다.

실제, 조선 중기 선지식 서산 대사는 무주상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던 노부부는 보시행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빈손으로 오고감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고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노부부의 보시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

공모주제 불교의 지혜, 자비, 정진을 이해 또는 설명하는 자유로운 영상
참가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개인 및 단체 참여가능)
일 정 응모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0일까지
결과발표 및 시상 : 2020년 4월초경-개별통보 / 4월말 시상식
신청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참가신청서는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참가신청서에 참여자 개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 필수
(#불교 #지혜자비정진 #불교문화확산UCC공모전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행복이야기 UCC와 함께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에 URL 작성)
제 출 : gby2010@naver.com(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영상파일명 : 이름(단체명)_영상제목_제출일
(예 : 홍길동_불교문화확산_20200201)
문 의 : (02)720-6618
출품규격 : ① 30초 이상 영상 ② 해상도 : 1280*720 이상(HD 해상도)
③ 출품작 : 1인(또는 단체)당 1작품 제출(출품료 없음)
④ 영상 파일 및 게시명 : 이름(단체명)_영상제목_제출일
(예 : 홍길동_불교문화확산_20200201)
⑤ 타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는 작품



시상내역 * 대상 1인 or 1팀 100만원(상금 및 상패)
* 우수상(4인 또는 4팀) : 각 50만원(상금 및 상패)
* 장려상(4인 또는 4팀) : 각 30만원(상금 및 상장)
* 아차상 : 상품 및 상장
유의사항/기타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귀속됨
주최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태고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BBS불교방송국, BTN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